

경성 중심성 · 문화적 표준 · 종교적인 것*

—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관한 몇 개의 주석 —

장문석**

〈차 례〉

1. 근대의 종언, 혹은 조선문학의 전환
2. 문화주의 비판과 국민의 이념
3. 경성 중심성과 문화적 표준
4. 개조일본인이라는 주체와 종교적인 것
5. 전환기의 인문학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의 맥락에 유의하면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경성중심성, 문화적 표준, 종교적인 것이라는 세 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은 논의의 전제로서 최재서가 편집자 겸 발행인으로서 활동하였던 잡지 『국민문학』의 변모과정에 유의하였으며, 1943년 최재서가 일본어 비평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을 출판했고, 이후 소설 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유의하였다. 우선 파리 함락 이후 문화주의 비판과 국민이라는 이념 정립 속에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2장). 이 과정은 1930년대 최재서 자신의 문학론을 자기비판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나타난 경성중심성과 문화적 표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3장). 최재서는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강조하였으며,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일익(一翼)으로 일본문학을 재편성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제국 일본문학의 내부에 여러 문화적 단위를 구획하려는 최재서의 기획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와 달리,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비균질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최재서의 경성 중심성과 문화적 표준에 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3890).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 인식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서 재조일본인과 종교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4장). 그의 국민문학론은 경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창작한 소설 역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내선일체'를 역사적으로 투사한 것이었다. 그의 소설에서 종교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회수된다. 또한 이 글은 시험적으로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 신정(神政)과 세속, 수도와 지방 등의 기준에서 김사량과 최재서의 주체구성·언어·문학 등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는데, 경성중심성, 문화적 표준, 종교적인 것 등을 핵심어로 1940년대 국민문학을 입체적으로 다시 읽는 것은 추후의 과제이다.

[주제어] 최재서, 『국민문학』, 『전환기의 조선문학』, 국민문학론, 문화주의, 경성 중심성, 문화적 표준, 재조일본인, 종교적인 것, 김사량

1. 근대의 종언, 혹은 조선문학의 전환

1941년 11월 『국민문학』을 창간하면서 최재서는 연간 일본어 잡지 4회 및 조선어 잡지 8회 간행을 예정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5·6월 합병호 후기에서 그는 조선어를 '고민의 종자'라고 명명하였고 결국 7월호부터 『국민문학』을 일본어 전용으로 간행하였다.¹⁾ 다음 달인 1942년 8월 최재서는 그 이전까지 유동적이고 다소 방어적으로 진술하였던 '국민문학'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술하면서, 나아가 조선문학을 통한 일본문학(국민문학)의 재평가 가능성을 요청하는 비평 『조선문학의 현단계』를 발표한다. 이 비평은 조선문학이 전쟁을 인지하고 충격을 받던 순간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주사변 발발에도 또한 지나사변 발발에도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조선 문단이 소화 15[1940]년 6월 15일, 파리 함락의 보도를 접하고 처음으로 놀라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파리의 함락은 소위 근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특히 구라파(歐羅巴) 문학의 유행을 따라온 조선문

1)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255쪽. 한글판으로 예정된 『국민문학』 1941년 12월호가 휴간되었기 때문에 실제 조선어로 간행된 것은 2권 2호 및 3호의 일부였다.

학은 처음으로 새로운 사태에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모더니즘의 경향을 따르던 시인들에게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주석1. 김기림 『조선문학에의 반성』(『인문평론』 소화 15[1940]년 10월호) 참조], 비평가들로 하여금 더욱더욱 모색으로 광분하게 하였다. …(중략)… 그리하여 그 해 말경에는 문단 신체제운동과 서로 호응하여 조선문학 전환론이 신문이나 잡지를 북적이게 되었다.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에의 전환이 2대 목표였다.[주석3. 최재서, 『전환기의 문화이론』(『인문평론』 소화6[1941]년 2월호) 및 『문학정신의 전환』(동 4월호) 참조.]²⁾

최재서의 기억과 기술에 따르면, ‘만주사변’도 ‘중일전쟁’에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조선문단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1940년 6월 15일의 유럽의 몰락, 곧 파리의 함락이었다. 파리의 함락은 ‘근대의 종언’을 의미하였고, 근대 서구문학을 일종의 전범으로 삼았던 조선문학에 충격 속에서 ‘반성’을 모색하였다. 이때 최재서가 염두에 두었던 당대의 비평은 김기림의 『조선문학에의 반성』이었다. 이 글에서 김기림은 “파리의 낙성(落城)”을 “우리가 개화(開化) 당초부터 그렇게 열심으로 추구해 오던 ‘근대’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한 막다른 골목에 부대쳤다”는 것을 인정하였다.³⁾ 동시에 최재서는 근대의 종언을 승인한 당시 조선 문학의 이후 과제를 기존의 문화적 입장(문화주의)의 반성과 새로운 입장(국가주의)의 수립,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파리 함락을 전후하여 조선문단이 충격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을 최재서가 방관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최재서 그 자신이 조선문단의 한 가운데에서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주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전제를 위해 파리의 함락을 전후한 시기 최재서

2)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國民文學』, 1942.8.),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81~82頁.

3) 김기림, 『朝鮮文學에의反省-現代朝鮮文學의 한課題』(『人文評論』1940.10), 홍중욱 편,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론』, 서울대출판문화연구원, 2017, 585쪽. 다만, 김기림의 경우 최재서가 서술한 당시 문단의 두 가지 경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같은 글에서 그는 파리의 함락을 근대의 ‘파산’으로 직시하면서도, 근대의 ‘부정’으로 상급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으며 ‘근대’ 자체의 가능성과 모순을 음미하고자 하였다. 이후 그는 『‘동양’에 관한 단장』(『문장』, 1941.4.)에서 식민지주와 주변의 위치에서 ‘동양주의’를 내재적으로 비판하였다. 요네타니 마사후미, 『중일전쟁기 조선 지식인의 ‘세계사의 철학』(혜제), 같은 책, 454~456쪽). 당시 자료를 인용할 때,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현행 맞춤법에 근거해 다듬었다.

의 비평적 모색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936년 이전 최재서는 경성제대 아카데미즘에 근거하여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 논문을 동경과 경성의 영문학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서구 근대문학과 유비(analogy)적 관계 속에서 주지주의라는 시각에서 조선문학의 현단계를 검토한 조선어 비평을 조선의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였다. 전자가 비서구 제국의 언어로 서구 제국의 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이었다면, 후자는 서구의 근대를 기준에 두고 비서구 조선 근대문학의 현 단계를 진단하면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보편적 주체를 구성하는 비평적 실천이었다.⁴⁾ 전자는 학술언어인 일본어로 쓰인 글로 일본인 필자의 논문과 함께 실린 것이었기에 그 자신 조선인으로서 자의식을 충분히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편, 후자는 조선어 신문에 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서구문학과 조선문학, 양자의 관계에 유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최재서가 출판사 인문사를 설립하고 잡지 『인문평론』의 간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실천을 구성하게 된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사임하면서 식민지 아카데미즘에서 한 걸음 물러난 최재서는 1937년 여름 도일하여 일본의 출판시장 및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때 그는 일본의 출판 시장과 조선의 출판시장의 구조와 규모를 비교하였으며, 일본의 잡지 『개조』와 『문학계』의 편집 과정을 검토하면서 ‘자본, 기술, 예술적 양심’의 균형을 고민하게 된다. 최재서가 중일전쟁의 발발 소식을 듣는 것 또한 일본에서였으며, 그는 ‘성전(聖

4) 신뢰할만한 최재서 비평의 연보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저작의 집대성은 김윤식, 『최재서 저작목록』, 앞의 책, 301~310쪽; 노민혜, 『해방 후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6, 87~92쪽 참조. 최재서와 경성제대에 관해서는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1-도남과 최재서, 일지사, 1984;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와타나베 나오키 외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김동식, 『낭만주의·경성제국대학·이중어 글쓰기-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관한 몇 개의 주석』,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1930년대 중반 최재서 비평에서 관해서는 김윤식, 『최재서론-비평과 모더니티』, 『현대문학』, 1966.3; 김동식,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이양숙, 『한국 근대 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2007; 김동식,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金東植, 沈正明 訳, 『崔載瑞の批評と東アジアモダニズムのコンタクト・ゾーン-金允植による崔載瑞の読みをめぐるいくつかの注釈』, 『言語社会』 14,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2020 참조.

戰)’이라는 단어를 동경의 잡지 편집실에서 들으면서 그 자신 전쟁에 연루되었음을 체감한다.⁵⁾

이후 최재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인문사를 창립하였고, 전시체제의 통제 아래에서 출판 활동을 수행하였다. 1939년 3월 인문사, 문장사, 학예사가 ‘황군 위문 작가단’으로 입학수, 김동인, 박영회를 파견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⁶⁾ 최재서가 간행한 잡지 『인문평론』 창간호 권두언 「건설과 문학」은 “세계의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독파간에는 벌써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구주의 위기를 고(告)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당대 동아시아에는 “지나를 구라파적 질고로부터 해방하여 동양에 새로운 자주적인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그것은 “정치적 공작” 뿐 아니라 “경제적 재편제”와 “교육개선”에 이어지는 “신질서 건설”이 감지된다고 언급하였다.⁷⁾ 물론 같은 권두언의 말미에서 최재서는 “문학의 건설적 역할이란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니”며 “혼 혼(混渾)한 정세에서 의미를 따내고 그로서 새로운 인간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국적 언사나 국책적 몸짓과 같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당대 동아신질서 건설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역시 갖추었다. 최재서는 『인문평론』을 통해 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 비판적 산문정신과 시민적 교양을 강조하며, 서구 문학을 번역하고 서구 지성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또한 ‘개성’, ‘합리성’, ‘근대성’의 입장을 견지하였다.⁸⁾ 하지만 1940년 6월 15일 파리 합락을 계기로 최재서는 결국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게 된다.⁹⁾ “올림피아의 마당은 폐쇄되었다”라는 선언이 포함된 『문학정신의 전환』

5) 장문석, 『출판기획자 최재서와 인문사의 탄생』,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580~588쪽.

6) 출판기획자 최재서와 인문사 출판의 경계에 관해서는 서승희,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 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8; 서승희, 『식민지 후반기 조선문학의 재생산과 전승의 기획 -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2』,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화회, 2019 참조. ‘황군 위문 작가단’에 관해서는 박진영, 『전선에서 돌아온 영문학자 입학수의 초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256~258쪽.

7) 『建設과 文學』, 『人文評論』, 1939.11, 2쪽.

8)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2,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2.

9) 김재용 또한 최재서의 비평적 입장이 1940년 6월 파리 합락을 전후로 하여 큰 변화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김재용, 『풍화와 기억』, 소명출판, 2016, 174쪽.

(『인문평론』, 1941.4.)은 이 시기에 쓰인 글인데, 앞서 살핀 『조선문학의 현 단계』(1942.8.)에서 최재서 스스로도 이 글을 당시 조선문학 전환론의 대표적인 글로 예거하였다.

1941년 4월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고 11월 『국민문학』이 간행되는데, 최재서의 경험적 진술에 따르면 두 잡지의 통합은 “경무당국”의 “주동”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실무 과정에서 편집자 최재서는 당국과 “곤란한 절충”을 수행해야 했다.¹⁰⁾ 이후 최재서는 잡지 『국민문학』을 편집하면서 국민문학론을 제시하였다. 임종국이 『친일문학론』(1966)에서 1940년대 최재서의 문학적 실천을 모두 6개 항목(문학 활동 5개 항목, 작가 활동 1개 항목)으로 분류한 이래,¹¹⁾ 지금까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최재서 비평론을 통괄하는 시각에서 국민문학론의 위치를 비정하는 연구,¹²⁾ 그의 국민문학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연구,¹³⁾ 최재서의 국민문학론과 잡지 『국민문학』 및 경성제대 영문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¹⁴⁾ 그의 국민문학론을 구성하는 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 논리를 추동하는 제국적 주체로서 그의 욕망과 분열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¹⁵⁾ 국민문학론, 특히 신지방주의론이 가지는 탈근대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¹⁶⁾ 다른 한 편,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이론적으로

10) 崔載瑞, 『朝鮮文學의 現段階』(『國民文學』, 1942.8.),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82~83頁.

11) “1940년대의 최재서의 문학활동은 원칙론, 시국론, 작품론(월평 종류), 좌담회의 사회 및 참석과 문예지 편집의 5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 대동아문학자대회와 전만예문회의(全萬藝文藝會議) 참석 기타의 사회 활동이 있고 또 단행본의 발간 등이 있으나, 이를 작가적 활동으로 개괄한다면 결국 최재서의 활동상황은 여섯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임종국, 이진제 교주, 『친일문학론』(교주본), 민족문제연구소, 2013, 445쪽.

12)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이혜진, 『최재서 비평론의 연속과 단절』,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13) 서승희, 『최재서 비평의 문화 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이혜진,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한국학』 3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만영, 『보편에 이르는 길 -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2012.

14)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주』. 이 글에서는 같은 저자의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과 문헌명을 다시 밝힌다.

15)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제국적 주체를 향한 욕망과 분열』, 창비, 2011; 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최재서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16)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수행되었다.¹⁷⁾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에 유의하면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그가 고민했던 다른 논제와 교차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1930년대 이후 최재서 비평의 전개과정과 잡지 『국민문학』의 변모 과정에 유의하고,¹⁸⁾ 1943년 최재서가 자신의 비평을 모아서 일본어 비평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을 출간하고 이후 소설 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등을 논의의 전제로 두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최재서의 비평을 중심에 두고 좌담회에서 그의 발언을 함께 살펴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주의 비판과 국민이라는 이념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봄(2장), 경성 중심성과 문화적 표준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국민문학론을 살펴볼 것이다(3장). 이후 재조일본인이라는 주제와 소설 창작에서의 종교적인 것의 문제를 검토하겠다(4장). 부분적으로 평양 출신으로 동경제대 출신문학자 작가 김사량 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최재서 문학의 특징을 보다 뚜렷이 부각하고자 한다.

2. 문화주의 비판과 국민의 이념

최재서가 경영하는 출판사 인문사에서 그의 첫 번째 조선어 비평집 『문화와 지성』을 간행한 것은 1938년 6월 25일이었고, 그의 두 번째 일본어 비평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을 간행한 것은 1943년 4월 30일이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최재서는 “나 자신이 문예의 세계에 있어서 일본 국가의 모습을 받

2006.

17) 미하라 요시아키, 임경화 역, 「‘국민문학’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미하라 요시아키, 장세진 역, 「‘보편주의’와 ‘보편성’의 사이 - 스코틀랜드 계몽과 『국민문학』」, 『한국학연구』 2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18) 『국민문학』의 변모는 다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절충 단계(1941.11.~1942.6.) → ② 일어 전용 및 국제 관념 명징 단계(1942.7.~1944.2.) → ③ 편집 및 발행자 명칭 변경 단계(1944.3.~1945.5.).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255~256쪽; 김동식, 『낭만주의·경성제국대학·이중어 글쓰기 - 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관한 몇 개의 주석』, 230~241쪽 참조.

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혼(魂)의 기록”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데,¹⁹⁾ 이는 겸사만은 아니었다. 최재서는 『전환기의 조선문학』에 수록된 글 14편을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한 것이었고 내용으로는 ‘전환기’에 대한 비평, ‘국민문학’에 대한 비평, ‘징병제’에 대한 비평, 작가론으로 평론집을 구성하였다.

[표] 평론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의 목차 및 비평의 원출처

순서	제목	발표지면	발표연도	언어	비고
1	전환기의 문화이론 (轉換期の文化理論)	인문평론	1941.2.	조선어	
2	문학정신의 전환(文學精神의轉換)	인문평론	1941.4.	조선어	
3	신체제와 문학(新體制と文學)				조선문인협회 주최 문예 보국강연대 (1940.11.)
4	신체제 하의 문예비평 (新體制下の文藝批評)	경성일보	1940.11.9. ~15.	일본어	원제 「신체제 하의 문학」 (개고)
5	국민문학의 요건(國民文學の要件)	국민문학	1941.11.	일본어	
6	새로운 비평을 위하여 (新しき批評のために)	국민문학	1942.7.	일본어	
7	조선문학의 현단계 (朝鮮文學の現段階)	국민문학	1942.8.	일본어	
8	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 (文學者と世界觀の問題)	국민문학	1942.10.	일본어	
9	국민문학의 입장(國民文學の立場)				인문사 주최 제1회 국민 문학 강좌 (1942.10.2.)
10	우감록(偶感錄)				탈고 1943.4.
11	징병제 실시의 문화사적 의의 (徵兵制實施の文化史的意義)	국민문학	1942.5.・6	일본어	
12	징병제 실시와 지식 계급 (徵兵制實施と知識階級)	조선	1942.7.	일본어	
13	국민문학의 작가들 (國民文學の作家たち)				탈고 1942.2.
14	시인으로서 사토 기요시 선생 (詩人としての佐藤清先生)	국민문학	1942.12.	일본어	

19) 崔載瑞, 「まへがき」,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4~5頁.

시간 순서에 따라 비평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비교적 국민문학 개념을 뚜렷이 서술한 『조선문학의 현단계』(1942.8.)는 평론집의 중반인 일곱 번째에서야 등장하며, 오히려 그에 앞서 수록된 비평에서 국민문학 개념은 다소 느슨하고 유동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이 평론집의 다섯 번째에 실린 『국민문학의 요건』(1941.11.)은 국민문학의 개념을 ‘일본정신’에 근거해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국민문학의 개념 자체를 다소 불확정한 상태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다.²⁰⁾ 즉 『전환기의 조선문학』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형성되고 심화하는 과정 자체를, 흔들림을 포함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환기의 조선문학』 첫머리에 배치한 세 편의 글 『전환기의 문화이론』(1941.2.), 『문학정신의 전환』(1941.4.), 『신체제와 문학』은 그 흔들림을 포함한 국민문학론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앞의 두 편 글은 『국민문학』 이전 『인문평론』에 조선어로 발표된 글로 그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며, 셋째 글은 강연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재서가 번역의 수고와 매체 전환의 번거로움을 감당해 수록한 것이다. 세 편의 글은 앞서 첫머리에서 살펴본 『조선문학의 현단계』(1942.8.)에서 증언한 1940년 6월 15일 파리 함락 이후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당대 조선문학 전환의 방향 설정 과정을 증언하고 있다. 비평집의 첫 번째 글 『전환기의 문화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위 명제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가 국가적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화주의를 문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서 볼 수 있듯,²¹⁾ 최재서에게 ‘문화주의의 청산’이라는 과제와 ‘국가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는 연결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자 ‘문화주의의 청산’ 문제이다.

20) 최재서는 『국민문학의 요건』(『국민문학』 창간호, 1941.11.)에서 국민문학이 “일본 정신에 의해 통일된 동서의 문화의 종합을 지반으로 하여, 새롭게 비약하려는 일본 국민의 이상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문학”임을 역설하면서도, “국민문학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며 “국민문학은 지금부터 국민 전체가 오직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문학”이라고 강조한다. 崔載瑞, 『國民文學の要件』(『國民文學』, 1941.11.),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51~53頁.

21)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7頁.

최재서 스스로 문화주의 청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실제로는 1930년대 중후반 최재서 자신의 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을 의미한다. 최재서에게 “문화란 관념의 제도화이며, 더 적절하게 말하면 자연적 생활에 관념을 회입시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즉 재배와 개발의 과정”이었다.²²⁾ 하지만 이와 같은 규범적 정의보다 1940년 당시 최재서에게 더 중요한 것은 조선에서 문화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서구 근대의 사상 및 생활 양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최재서에게 ‘문화주의’는 시민계급의 ‘개성’,²³⁾ ‘교양’,²⁴⁾ ‘개인주의’,²⁵⁾ ‘자유주의’,²⁶⁾ ‘코스모폴리타니즘’²⁷⁾ 등의 개념과 의미적 인접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파리 합락 이후 서구 근대적 삶의 양식에 교양과 사상, 문학이 시효를 다했다는 것이 최재서의 진단인데, 그는 문화와 위 인접 개념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수행한다. 1942년 10월에 쓰인 『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와 『국민문학의 입장』의 한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과 교양인 비판이 그 예이다.

19세기 말엽, 세계 교통이 완비되었고 이들 로만티스트들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새로운 타입이 되어 문학 상에 등장하여 온 것입니다. …(중략)… 코스모폴리탄은 예외 없이 교양인입니다. 단 그 교양은 반드시 어떤 특정 나라의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적과 국민성을 뛰어 넘어 자유롭게, 마치 새가 좋아하는 가지에 머무는 것처럼, 마음이 향하는 문화에서 고향을 찾아내는 풍의 교양입니다. 그는 피와 토지에 결박된 현실의 세계에서 살기보다는 모든 교양인이 자유롭게 교제 가능한 관념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세계에 사는 코스모폴리탄이 만들어낸 문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름을 날린 최초의 문인은 미국의 소설가 헨리·제임스입니다. 그는 아메리카의

22)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12頁.

23) 崔載瑞, 『新體制と文學』,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36~37頁.

24) 崔載瑞, 『文學者と世界觀の問題』(『國民文學』, 1942.10.),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103頁.

25)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7頁.; 崔載瑞, 『新體制と文學』, 36~37頁.

26) 崔載瑞, 『新體制と文學』, 36頁.

27) 崔載瑞, 『文學精神の轉換』(『人文評論』, 1941.4.),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23頁.

조야한 물질문명에 혐오를 느껴 드디어 이기리스로 귀화한 국제적 교양인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일생 고향을 찾아다녔으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중략)… (메갈로폴리타니즘에 동의하는 - 인용자) 그들 청년들은 어느 도회에 살더라도 런던이나 파리나 모스크바의 청년들과 정신적인 악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중략)… 코스모폴리탄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적이 없으므로 정치적인 책임 관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도덕적 전통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으므로 윤리적인 책임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혁명적 이론가로서 정치적 정열을 비판하면 그만이며, 악마적 풍자가로서 인간 타입을 냉소하면 족합니다. …(중략)… 모두 유대인으로, 그것도 이름 있는 국제 교양인이라는 것은, 나치스 독일 당국이 아니라도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 만이나 슈니츠라 정도의 풍부한 교양과 뛰어난 상상력이 무엇 하나 건설적인 일에는 사용되지 않고, 가족과 개인의 몰락과 타락의 묘사에 낭비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혹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조국이 있고, 그 조국에 대하여 전일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도저히 그런 퇴폐적인 문학에 태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²⁸⁾

1942년 최재서는 서구적 개인과 교양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비판하였다. 우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기 진술과 강연은 1930년대 중반 최재서 자신의 언급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 교토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구(globe)를 상상하도록 하였으며 근대문학의 글쓰기를 추동하였다.²⁹⁾ 새로운 고향을 찾아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1930년대 후반 이효석의 경우에서 한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³⁰⁾

28) 崔載瑞, 『國民文學の立場』,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143~147頁. 『國民文學の立場』은 강연록이다. 거의 같은 내용을 비평 『文學者と世界觀の問題』(『國民文學』, 1942.10.), 107~111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19세기 말 교토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구(globe)의 상상에 관해서는 김동식, 「세계의 장소론場所論 - 지구 · 대타자 · 여백으로서의 세계」, 『문화과사회』 27(1), 문학과지성사, 2014, 401~405쪽 참조.

30) 중일전쟁기 이효석은 전쟁과 통제 아래에서 『화분』(1939), 『여수(旅愁)』(1939), 『벽공무한』(1940) 등의 소설을 통해 그 자신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 절정을 보여준다. “진리나 가난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공통되는 것이어서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다. 이곳의 가난한 사람과 저곳의 가난한 사람과의 사이는 이곳의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사이보다는 도리어 가깝듯이 아름다운 것

비슷한 시기 최재서는 ‘메갈로폴리타니즘’을 “윤돈(倫敦)이나 파리(巴里)의 청년을 만나 악수하고 환담할 만한 의식만은 가지고 싶은 일”로 설명하면서, 이때 어학력의 부족이나 의복의 초라함은 서로 공감하고 정신적 교류를 맺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최재서의 결론은 “문학에 있어서의 ‘메갈로폴리타니즘’은 결코 부화(浮華)한 도회찬미는 아니”라는 것이었다.³¹⁾ 2~3년 전 『인문평론』 제2호 1939년 11월호 ‘교양론’ 특집에서 최재서는 『교양의 정신』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어떤 실리적 목적을 위하여 광분하는 시대”를 경계하면서 “사회 전체가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고 정신적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물질적 이득만을 위하여 급급하던 당시 있어 교양은 흠에 파무치고 말았었다.”라고 안타까워한다. 최재서는 “휴머니즘”의 근거를 “인간적 가치의 옹호와 증진”에서 찾으면서, 그것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개인적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²⁾ 중일전쟁기 『인문평론』 시기까지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는 계기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된 ‘흠’이라는 개념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국민문학』 시기에는 긍정의 계기로 사용되었다.

최재서가 앞서 인용문에서 서구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교양, 혹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대표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가는 헨리 제임스, 토마스 만이었으며, 이외에도 제임스 조이스, 슈테판 츠바이크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1930년대 중후반 최재서가 주목했던 작가들이었다. 헨리 제임스는 1930년대 중후반 조선 장편소설의 이론적 갱신을 모색하던 김남천과 그가 주목했던 작가였다.³³⁾ 그리고 그는 1935년 니스에서 개최된 지적협력국제회의에서 토마스 만이 반파시즘 인민전선에 서서 “지성의 옹호”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 작가로서 주목하였다.³⁴⁾ 1930년대 중반 유럽에서의 좌우문학의 공동적인 움직임

도 아름다운 것끼리 구역을 넘어서 친밀한 감동을 주고 받는다.”(이효석, 『화분』, 인문사, 1939, 156쪽). 중일전쟁기 이효석의 ‘교양’에 관해서는 정실비,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교향 표상의 변천(變轉)』,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학회, 2012 참조.

31) 최재서, 『단평집-메가로폴리타니즘』, 『문학과지성』, 인문사, 1938, 282~283쪽.

32) 최재서, 『교양의 정신』, 『인문평론』, 1939.11, 25~26쪽.

33) 최재서, 『토마스 만의 가족사 소설』, 『동아일보』, 1938.12.1.; 최재서, 『가족사 소설의 이념-토마스 만, 『붓텐부르크가』』, 『인문평론』 5, 1940.2; 최재서, 『서사시·로만스·소설』, 『인문평론』 11, 1940.8; 김남천, 『낭비』, 『인문평론』, 1940.2~1941.2.

34) 최재서, 『지성옹호』, 『문학과지성』, 인문사, 1938, 158쪽.

입과 ‘인간정신’의 옹호라는 가치에 동의하였던 최재서는 이후 T.S.엘리엇이 주관하였던 잡지 『크라이테리온』의 폐간을 아쉬워하면서 『인문평론』을 창간하였다.³⁵⁾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기가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김사량과 최재서가 망명작가 토마스 만과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해 대조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일전쟁기 김사량은 『독일의 애국문학』(1939.9.)에서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회귀하는 문학으로서 ‘애족문학(愛族文學)’과 늘상 세계주의적 입장으로 극복되는 ‘애국문학’을 대별하면서, 오히려 “추방된 이민 문학”으로서 “토마스 만의 절절한 애국적 고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³⁶⁾ 중일전쟁기 김사량이 ‘망명’에서 가능성을 찾았다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최재서는 1930년대 중반 그 자신이 적극 참조했던 서구 작가에게 ‘조국’이라는 계기가 부재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교양을 낭비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시기 최재서가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귀화’였다.

김사량의 ‘망명’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운동(vector)이고, 최재서의 ‘귀화’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운동이라는 점은 두 사람이 기획한 ‘국민문학론’의 특징을 대별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방향성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제국 일본에서 활동한 식민지 문학자라는 ‘외부자’로서 문학적 실천을 수행한 김사량과 식민지 조선문학 장의 중심에서 ‘내부자’로서 국민문학 개념을 재편하면서 문학적 실천을 수행한 최재서라는 두 사람의 위치(position) 차이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내부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³⁷⁾의 위치에 설 수도 있지만, 최재서는 ‘국가’라는 계기를 강조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35) 영국의 『크라이테리온』, 일본의 『문학계』, 조선의 『인문평론』의 연속과 단절에 관해서는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95~98쪽 참조.

36) 김사량, 『독일의 애국문학』(『조광』 1939.9.), 김재용 · 광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298~301쪽. 이망명문학에 대한 김사량의 비평에 관해서는 장문석, 『김사량과 독일문학』, 『인문논총』 76(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8, 196~203쪽 참조.

37) 에드워드 사이드,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지식인이란 누구인가?』, 마티, 2012, 66쪽. ‘망명’과 ‘귀화’, ‘내부’와 ‘외부’를 대별하는 이 단락의 서술은 같은 책, 61~66쪽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내부와 외부, 망명과 귀화를 사회정치적 현실인 동시에 은유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내부의 예는 ‘사회’, ‘친숙한 장소’, ‘공동체’, ‘고향’ 등이다.

파리 함락 이후인 1941년 4월 최재서는 『문학정신의 전환』에서 “프랑스는 1790년의 혁명 이래 스스로 요람화한 문화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때문에 문화의 국가성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질문한다. 이것은 서구 문화에 대한 진단이면서 그 자신의 문학론에 대한 자문이었다. 나아가 그는 개인이 바로 인류에 개입하는 문화 창조라는 도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조심스레 의심하면서 ‘문화의 국민화’를 전환의 방향으로 제안한다.

문학만 보더라도 개인이 인류적인 입장에서, 다만 독창성으로만 인류 문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근대적 관념은 더 이상 승인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러 민족의 문화적 선수가 모여서 창조적 능력을 경연하는 올림피아의 마당은 폐쇄되었다. 그런 능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절실한 민족의 생존과 국민의 영위에 바쳐져야만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 파리의 함락은 많은 교훈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 …(중략)… 지금까지의 생각에 이르면 현대문화가 취해야만 할 전환의 방향이 거의 자명한 형편에 속하지 않았는가? 문화의 국민화-이것 이외에 길은 없을 것이다.³⁸⁾

최재서는 1940년 파리 함락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독창성이 인류 문화 창조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한 끝에, ‘올림피아의 폐쇄’라는 진단을 내린다. 한 개인이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근대적 경기로서 올림픽은, 『국민문학의 입장』 서두의 표현을 빌자면 19세기 말 교통 완비를 통한 지구의 상상, 코스모폴리탄의 관념과 함께 등장한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 최재서 자신도 개인이 인류라는 ‘보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³⁹⁾ 파리 함락으로 그 신념은 붕괴하였고, ‘올림피아 마당의 폐쇄’는 그 신념의 붕괴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제 최재서에게는 문화 창조를 위해서

38) 崔載瑞, 『文學精神의轉換』(『人文評論』, 1941.4), 22~23頁.

39) 미하라 요시아키는 1930년대 중후반 최재서 비평론을 ‘개체’-‘보편’을 축으로 하는 주체성 구축의 이론, 즉 “주지적이고 비평적인 ‘개체’에 입각하면서 내재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구축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개체’의 ‘주체화’를 도모하는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미하라 요시아키, 임경화 역, 『국민문학의 문제』, 200쪽.

개인과 인류가 아닌 새로운 단위가 요청되었다.

이때 최재서가 찾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단위는 ‘국민’이었으며, 그는 ‘문화의 국민화’를 요청한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문화주의의 청산’이 ‘국가주의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올림피아가 폐쇄되었다는 진단을 실은 1941년 4월호를 마지막으로 인간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표제에 붙인 『인문평론』은 폐간되었다. 최재서가 당국과의 교섭한 끝에 그해 11월 잡지 『국민문학(國民文學)』을 7개 항목의 편집 요강을 책머리에 두고 창간한다.⁴⁰⁾

3. 경성 중심성과 문화적 표준

1930년대 중반 최재서는 그 자신 비평 원리를 <전통-교양-지성-모랄>로 구축하였지만, 실제 비평에서 <모랄의 결여-지성의 부재-교양의 결핍-전통부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 갔다.⁴¹⁾ 그 자신이 구축한 이론과 현실 사이의 낙차를 확인한 셈이다. 파리 함락 이후 최재서는 『전환기의 문화이론』(1941.2.)에서 서구적 근대를 이념으로 하여 그가 지향한 조선 문화와 조선의 현실이 어긋나는 양상을 포착하면서 그 현상을 “분열”⁴²⁾로 진단하였다. 1930년대 그가 확인하고 고민하였던 낙차의 현실적 근거를 나름의 방식으로 진단하고자 한 것이다.

최재서가 조선 문화의 분열 양상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이다. ① 조선 문화와 현실 생활의 유리, ② 조선 문화에서 대중성과 순수성의 분리. ①은 조선의 문화가 서구와 일본의 생활 양식을 표면적으로 모방하면서 형성되었던 조선 근대문화의 형성과정과 연관된다. 그것은 조선의 실생활과 전통과

40) 『국민문학』 편집요강 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체 개념의 명칭, ② 국민 의식의 양양, ③ 국민 사기의 진흥, ④ 국책에의 협력, ⑤ 지도적 문화 이론의 수립, ⑥ 내선 문화의 종합, ⑦ 국민 문화의 건설.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國民文學』, 1942.8.), 84頁.

41) 김동식,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입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192쪽.

42)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1頁. 이하 분열의 두 가지 유형은 같은 글, 3頁 및 9~10頁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무관한 것이었다. ②는 조선문화의 주체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다. 최재서는 조선 문화의 주체가 지식인과 대중으로 분열되면서, 조선 문화 역시 순수성과 대중성이 분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최재서는 분열의 현상을 진단한 같은 글에서 곧바로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국민문화는 이를테면 대중성과 순수성(이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화 영역은 문학-즉 대중소설과 예술소설-이다)과의 새로운 조화와 통일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형편이다.”라는 결론으로 내달아가면서,⁴³⁾ 국민문학을 분열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글의 관심은 최재서가 국민문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민문학이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며 어떠한 내포와 외연을 갖추었는가라는 문제이다. ① 조선 문화와 조선 현실의 유리, ② 조선 문화에서 순수성과 대중성의 분열. 이 두 가지 문제는 최재서가 국민문학론을 전개하는 과정에 계속 잠재해 있었다.

1941년 11월 『국민문학(國民文學)』 창간호에 최재서는 일본어 비평 『국민문학의 요건』을 기고한다. 이 비평에서 최재서는 일견 “국민적 입장”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 편 그가 글 전체에서 놓지 않은 것은 국민문학 개념의 유동성 및 미확정성이었다. 그는 국민문학 개념을 좁혀 이해하는 입장과 넓혀 이해하는 입장 모두를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개념을 넓혀서 이해하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국민문학을 “국민문학은 지금부터 국민 전체가 오직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대한 문학”으로 넓고 높게 규정한다.⁴⁴⁾ 최재서는 국민문학의 개념 자체를 불확정한 상태로 제시하면서, 그 자신, 혹은 다양한 주체가 개입할 여지를 가능한 한 열어둔다. 그리고 창간호의 대담에서 경성제대 중국문학 교수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가 ‘조선적인 것’에 대해 거리를 둘 것을 제안하자, 최재서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저는 그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이론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예로 드는 것은 영국에 “귀화”한 작가 조셉 콘래드였다.

43)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10頁.

44) 崔載瑞, 「國民文學の要件」(『國民文學』, 1941.11.), 64頁.

이러한 것(조선적인 것-인용자)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결국 국가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겠냐는, 추상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눈 앞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영국 작가 중에 콘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란인으로,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고 마침내 영국에 귀화(歸化)해서 결국에는 영吉利 작가로 남았습니다만, 영국인으로서의 좀처럼 쓸 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영문학 안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까지 조그맣게 묻쳐있던 조선의 작가가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일어설 경우, 결국 일본문학 속에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공헌을 하게 되지요.-인용자).⁴⁵⁾

앞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최재서가 ‘망명’에 비판적 거리를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좌담에서 그는 조선적인 것을 ‘로컬 컬러’, 즉 특수성의 층위에 한정하는 요시무라 고도(芳村香道, 박영희)의 언급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최재서가 강조하는 것은 ‘귀화’인데, 곧 이질적인 것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경지의 개척이었다. 그는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참여할 경우, 일본문학에 새로운 “전환(轉換)”을 가져오며 나아가 일본문학이 “좀 더 넓은 것”으로 확장되고, “지금까지 내지(內地)적 문화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부가”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좌담에서 최재서는 국민문학을 “각각의 특수성이 서로 교섭하여 새롭게 만들어가야하는” 미정형의 “무엇”으로 설정하는데, 그는 조선문학을 ‘특수성’에 한정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참여(귀화)하여 그것을 재구성하는 “독창성”으로 의미화하고자 하였다.⁴⁶⁾

조선문화가 독창성을 갖추어 개입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재서는 일본문화를 획일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내부에 분할과 다양성이

45) 辛島驍 他,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座談會), 80頁(최재서의 발언). 인용문 아래 단락의 인용은 같은 글, 77~78頁에서 가져왔다.

46)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328쪽. 한 편, 윤대석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형성 중에 있는 대동아 공영권을 적극적인 참여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식민지 통치의 대상에서 식민지 지배의 주체로 자신을 변신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28쪽.

있는 비균질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규정한 후 다시 특정한 원리에 의해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때 최재서가 제시한 통합의 원리는 ‘일본정신’이었다. 좌담회의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일본 내부의 분할과 비균질성에는 동의하였는데, 이원조는 ‘내지’ 안에서도 구주(九州), 관동(關東), 관서(關西) 풍속이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최재서는 이원조의 언급을 받아서 최재서는 “지방문화와 국민문화”라는 논제로 정리하였다. 가라시마 역시 도시, 농촌, 광산, 어촌의 문화적 불균질성을 언급하였다.⁴⁷⁾

처음 『국민문학』은 일본어 4회, 조선어 8회 간행을 기약하지만 창간 이듬해 최재서는 언어 문제를 ‘고민의 종자’라 부르며 『국민문학』의 전면 일본어 간행을 결정한다.⁴⁸⁾ 이후 1942년 8월에 발표한 『조선문학의 현단계』에서 최재서는 국민문학론에 관한 체계적 기술을 기도한다. 『조선문학의 현단계』에서 최재서가 기술한 국민문학론의 논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핵심논리만 간략히 살펴보겠다. 1942년 3월 김종한은 ‘지방’과 ‘중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면서 동경이나 경성 모두 “다 같은 전체에 있어서의 한 공간적 단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현단계』에서 이에 공명하며 “지방에 각각의 문화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향후 일본문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을 일본의 지방문학인 구주문학, 북해도문학, 대만문학과 비교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렬(同列)에 나란히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조선문학은 독자적인 문학 전통을 갖추고 있어서 “지방적 특이성 이상의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최재서의 판단이었다. 그는 영문학의 사례로부터 조선 문화와 신일본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영

47) “장래의 일본문화를 생각할 때 획일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많은 즉 변화성이 있는 문화를 포용하는 혹은 동일 원리에 의해, 일본정신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그것으로 일본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幸島驥 他,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座談會), 82頁(최재서의 발언), 81頁(이원조의 발언), 85頁(가라시마의 발언).

48) 김윤식, 『최재서의 고민의 종자론과 도키에다 국어학』,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296~293쪽 참조.

국에서의 “이탈”을 목표로 하는 애란문학이 아니라 “영문학의 일부분이지만 소격란(蘇格蘭)적 성격을 견지하여 다수의 공헌”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문학에 주목하여, 영문학과 스코틀랜드문학의 관계를 일본문학과 조선문학에 유비하여 설명하였다.⁴⁹⁾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문학과 일본문학의 관계에 대한 최재서의 선언적 진술에 주목하였는데, 『조선문학의 현단계』의 후반부에는 이 진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최재서가 고민했던 두 가지 문제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 일본문화의 순수성 유지와 이민족 포용, ㉡ 문화적 단위로서 지방에 근거한 국민문화의 창조.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논의의 순서를 조정하여 후자 ㉡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다.

조선문학이 지방문학이라고 할 경우, 지방이라는 언어는 종래와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지방에 각각 문화적 단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후 일본 문화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모든 문화적 설비와 인재가 동경에 집중되어, 지방은 다만 그 형식적 모방에 열중하고, 더욱이 동경의 문화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더욱 조악화된 구리파의 퇴폐문화였 다라고 할까, 한때의 추태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국민문화의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형식주의가 획일적으로 강제될 위험이 있다. …(중략)… 따라서 그것을 동경으로부터 경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략)… 각 지방에 문화적 단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어떻든 모든 예술가, 모든 조각가가 동경으로 동경으로 쇄도하여, 마침내 무성격자로 떨어져서, 곧 불건강한 예술을 생산해내는 식의 광기어린 풍습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지방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활과 그 요구 안에서 만들어 낸 문화가 아닌 한, 그것을 국민문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노대가(老大家) 모두가 죽을 때까지 지방에서 견실히 각각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불란서 문단의 풍속

49) 김종한, 「일지의 윤리」, 『국민문학』, 1942.3, 36쪽;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國民文學』, 1942.8.), 96頁, 88~89頁. 최재서의 조선문학과 스코틀랜드문학의 유비에 관해서는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112~118쪽 참조.

은 대단히 교훈적이라고 생각한다.”⁵⁰⁾

앞서 언급했듯, 최재서는 일본문학의 질서 아래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을 이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위 단락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다. 구체적인 기획안과 관련하여 이 글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최재서가 경성과 조선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최재서는 확일적 모방의 폐해와 지방 전통의 범례 모두를 서구의 사례에서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과 식민지의 구조에 관한 최재서의 인식은 명확하며 일본문학의 비균질성을 논리화하고 그곳에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이 개입하여 일본문학을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해 나간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조선 내부의 비균질성에 대한 최재서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그가 조선과 경성을 혼동하는 것은 그 징후이다.

제국 일본의 지역적 단위(중심)가 여러이었던 것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지역적 단위(중심)는 하나였다.⁵¹⁾ 식민지 조선은 종종 경성으로 표상되었으며,⁵²⁾ 경성은 국가(식민지)의 중심이면서 식민지에서 가장 개발된 도시였고, 서구(근대)문화와 연결된 장소였다. 따라서 국가·민족의 명칭인 조선과 지역·도시인 경성의 혼동은 최재서 개인의 실수이기도 했지만, 나아가 당시 식민지 조선문화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식민지와 농촌은 근대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식민지·농촌이 제국·도시를 지탱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와 농촌 역시 ‘구조로서의 근대’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따라서 민중의 동경, 좌절, 무관심까지를 전제 혹

50)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國民文學』, 1942.8.), 96~98頁.

51) 일본의 지역적 단위(중심)가 여러이라는 서술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당시 주요 신문은 동경판(관동판)과 대관판(관서판)이 별도로 간행되었다. 또한 최재서도 지방문학을 언급하면서 동경문학, 경도문학, 구주문학, 북해도문학 등을 별개의 단위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와 비교할 때 조선문학은 경성문학 외에는 별도의 문학을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 당대의 상황이었다.

52) 예컨대 1926년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 제국대학 설립하는 과정에서 총독부가 제출한 명칭은 ‘조선 제국대학’이었지만, 법제국 심의 과정에서 “조선에 제국이 성립한 것 같이 해석할 자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고, 결국 경성제국대학으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京城帝國大學 編,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16頁.

은 필수조건으로 하여서, 그 위에 제국과 도시가 군림하는 구조 자체를 근대로 이해할 수 있다.⁵³⁾

앞서 살펴보았듯 『전환기의 문화이론』에서 최재서는 조선문화의 문제로 ① 문화와 현실의 유리, ② 지식인과 대중의 분열을 진단하였다. 조선문화의 분열에 대한 그의 통찰은 조선(문화)의 비균질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화하고 심화할 가능성을 계기를 품고 있지만, 최재서는 그 계기를 충분히 논리화하지 않았다. 예컨대 문화 양식과 실생활의 유리를 진단할 때 최재서는 문화주택과 서구화한 생활 양식을 예거한다. 이 사례는 도시라는 토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지만, 최재서는 이 문제를 도시와 농촌이라는 비대칭적 식민지 개발의 문제로 이끌어가지 않았다.⁵⁴⁾

최재서는 제국 내부의 비균질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조선 내부의 비균질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뚜렷한 인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42년 1월 『국민문학』 좌담회에서 백철은 이동극단에 참여하고 농촌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문화가 민중 생활과 분리되어 개인주의적이었던 것”과 “도시 편중의 경향”을 반성하는데, 최재서는 “지금 백철 님이 말씀하신 테마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동의하고 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바로 방송국 참여자에게 발언을 넘긴다.⁵⁵⁾ 1943년 1월 평양 문화를 주제로 한 평양 재조일본인과의 좌담회에서는 진행 발언 외에는 침묵한다.⁵⁶⁾ 최재서는 비균질한 조선, 곧 경성의 외부로서 농촌에 대

53)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 환경’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로자·룩셈부르크, 長谷部文雄 譯, 『資本蓄積論』(下), 岩波書店, 1934, 50~51쪽. 홍종욱은 룩셈부르크의 통찰에 근거하여 ‘양식으로서의 근대’와 ‘구조로서의 근대’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양식으로서의 근대’는 식민지 근대를 서구의 특정한 스타일이나 양식의 이입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구조로서의 근대’는 양식으로서의 근대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모순이나 갈등까지를 포함하여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洪宗郁, 『戰時期朝鮮의轉向者たち』, 有志舎, 2009, 21頁.

54) 제국-식민지/도시-농촌의 비대칭성과 ‘식민지적 개발’에 관해서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140~147쪽; 홍종욱,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4, 184~191쪽; 清水美里, 『帝國日本の「開發」と植民地台湾-台湾の嘉南大圳と日月潭發電所』, 有志舎, 2015, 268~284頁.

55) 辛島驍 他, 『文藝動員を語る』(座談會), 『國民文學』, 1942.1, 117~118頁(백철과 최재서의 발언).

56) 小泉顯夫 他, 『平壤の文化を語る』(座談會), 『國民文學』, 1943.1, 86頁. 최재서의 모두 발언은 비평 『조선문화의 현단계』(1942.8.)의 서술을 상당부분 옮겨 오고 있다. “종래, 문화라 말한다면 향락적

해서는 당위적 발언 이상의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이다.

이후 최재서 역시 문예 행사에 거듭 동원된다. 『전환기의 조선문학』에 실린 『신체제와 문학』은 1940년 11월 조선문인협회 주최 문예보국강연대 강연 기록인데, 이 강연은 그가 서선(西鮮) 지역을 순회한 결과였다. 조선의 농촌에서 진행한 강연이었지만, 강연의 내용은 경성의 잡지에 발표한 비평과 많은 차이는 없으며, 지역 이동의 경험을 그의 문학론으로 적극적으로 환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2년 11월에서 12월까지 2주간 최재서는 평양에서 함흥까지 지방을 이동한 후 여행일기를 발표하는데, 이 글에서 그의 여정은 경성에서 구성된 그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애초 여행의 목적이 국민문학 지사 설치였거니와, 그는 평양에서 고(故) 이효석이 쓴 소설 『은은한 빛』의 ‘지상인물(紙上人物)’ 호리 관장의 모델인 고이즈미 평양박물관장을 만나고, 성천에서는 김남천이 전작 『대하』를 집필하면서 들렀던 양덕온천을 여정의 중심에 두었고, 숙소에 들어서도 조선인의 “국어사용”이라는 총독부의 정책에 관심을 두었다.⁵⁷⁾ 그는 서선과 북선을 다니면서도 그곳 고유의 문화와 생활에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출발한 경성이라는 중심에서 근거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그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최재서가 조선의 비균질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에서 행한 그의 강연이 잡지에서 발표한 그의 비평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그의 여행기가 경성의 문제의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조선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최재서의 문제의식은 경성이라는 중심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의 주변부를 살피는 시각과 방법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조선의 현실, 즉 조선 내부의 비균질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1940년

이고 부박한 도회지의 유행을 가져다만 문화라 생각했고 따라서 다투어 동경을 모방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동경의 문화라는 것도 고유의 문화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더 나빠진 구라과의 퇴폐적 문화를 흉내내고 뽐내는 상태였습니다. …(중략)… 각 지방 지방이 그 고유한 문화를 수립하고 그것의 지방문화를 통하여 일관하는 일본정신 - 황도정신이 발현하는 것이 금후 일본문화의 존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각 지방의 흥과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진정 건전한 국민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57) 崔載瑞, 「西鮮から北鮮へ」, 『國民文學』, 1943.1, 100~105頁.

대 최재서는 지방에서 뿌리내리고 문학적 실천을 수행한 모범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범례를 서구 프랑스 작가에게서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그가 조선에서는 범례를 찾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범례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다음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조선문학의 현단계』의 두 번째 문제 ㉠ 일본 문화의 순수성 유지와 이민족 포용 문제와 관련이 된다.

오늘 이후 일본문학은 한편으로 순수화의 정도를 점점 높이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 확대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갈 것이다. 전자는 전통의 유지와 국제 명성과 관련된 한 면이며, 후자는 이민족의 포용과 세계 신질서의 건설과 관련된 한 면이다. …(중략)…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끝없이 자극이 되고, 또한 시험 삼아 심어보는 밭(試植田)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후의 조선문학이 아닐까? 일본의 문화가 조선에 건너와서 소위 반도사투리(半島訛)를 만든다거나 이전의 코이네(コイネ)의 전철을 밟아서는 큰일이다. 그러나 내지(内地)적 형식 그대로 일본문화를 가져와도 그것이 과연 대륙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⁵⁸⁾

최재서는 일본문학이 조선문학 등 지방문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역사적 참조사례로 고대 헬레니즘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코이네’의 전철을 경계하는 최재서의 입장은 위 비평보다 이른 1942년 2월 좌담회 「대동아문화권의 구상」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만주국’의 ‘국어 교육’을 둘러싼 대립을 “순수한 국어(純粹な國語)”를 보급하려는 입장과 순수함을 다소 잃더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국어를 보급하려는 입장 사이의 대립으로 정리한다. 이때 최재서가 힘주어 동의하는 것은 전자이다. 그가 전자에 동의하는 이유 역시 그리스 코이네(koine)의 역사적 경험 때문

58) 崔載瑞, 「朝鮮文學の現段階」(『國民文學』, 1942.8.), 94~95頁.

이다. 헬레니즘 시대 “식민지로 옮겨간 언어가 방언화하면서 동시에 대단히 퇴폐적으로 되어 버렸”으며, 결국 그것이 “본지(本地)”로 “역수입(逆輸入)”되기도 했다. 역수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민중이 “어렵고 딱딱한 것(堅苦しいもの)”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재서의 판단이었다.⁵⁹⁾

중일전쟁 이후 각각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의 성격과 일본어의 성격에 주목할 때에도 최재서와 김사량은 갈라진다. 최재서의 관심이 경성-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김사량의 관심은 도쿄-중심으로부터 점차 주변으로 탈중심화된다. 그리고 김사량은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비틀어 사용하거나 방언화하였고, 제국의 언어를 모방하면서 조롱하였다.⁶⁰⁾ 하지만 최재서는 “순수한 국어”와 “견고한 것”을 강조하였다.

언어와 문학에서 “견고한 것”을 강조하는 최재서의 입장은 1930년대 그의 영문학 연구를 떠올리도록 한다. 최재서가 번역하였던 어빙 배빗은 “어떻게 표준(Standards)을 갖는 동시에 도그마에 유폐되지 않을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상상적이면서 동시에 규준(規矩)에 들어맞는” “윤리적 예술”을 주장한 바 있었다. 배빗은 서양문명의 뿌리인 고전적 인문주의의 ‘표준’에 근거하여 ‘내면적 통제’를 완성함으로써 거짓 질서의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문학자였다.⁶¹⁾ 또한 1939년 최재서는 『인문평론』을 창간하면서 「모던문예사전」을 통해 T.S. 엘리엇의 「크라이테리온」을 “비평 기준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잡지”로 설명하였으며, 그의 폐간사를 인용하면서 잡지 폐간의 이유를 “문학적 표준의 붕괴”로 요약한 바 있었다.⁶²⁾ 영문학자로서 최재서가 연구

59) 秋葉隆 他, 「大東亞文化圈の構想」(座談會), 『國民文學』, 1942.2, 50頁(최재서의 발언).

60) 김사량의 언어에 관해서는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104~114쪽. 김사량 문학의 탈중심화는 대학생에서 민중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제국대학 인근지역 도쿄 우에노에서 체일조선인 거주지 요코스카, 식민지 평양, 원산, 흥천, 원산, 반식민지 베이징으로의 방향으로 수행된다. 다카하시 아즈사, 「김사량의 일본어 문학, 그 형성 장소로서의 『문예수도』 - ‘제국’의 미디어를 통한 식민지 출신 작가의 교류」, 『인문논총』 76(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9, 298~302쪽; 이경재, 「김사량의 『항수』에 나타난 세 가지 항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174~194쪽; 장문석, 「김사량과 독일문학」, 187~194쪽 참조.

61) 어빙·배빗, 崔載瑞 譯, 『ルーソーとロマン主義』(上), 改造社, 1939, 32頁, 311頁; 미하라 요시아키, 洪중욱 譯, 「최재서의 Order」, 90쪽.

62) 崔載瑞, 「크라이테리온」, 『人文評論』, 1939.10, 126쪽.

하고 번역하였던 배빛은 표준(standard)를, T.S.엘리엇은 기준(criterion)을 중시한 문학자였으며, 최재서 역시 문화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즉 재배와 개발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⁶³⁾ 따라서 그는 특정 정도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고 ‘개발’된 문화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불균등한 문화 발전상황에서 그는 경성이라는 중심의 도시 문화는 발견하고 의미화하지만, 경성 이외의 주변부 농촌의 문화는 발견하거나 의미화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최재서의 문학론에서 경성중심성과 문화적 표준은 연결되어 있다.

최재서는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이 독창성을 갖추어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일본문학의 재편에 참여하는 국민문학론을 기획하였다. 그의 국민문학론은 제국 일본문학의 비균질성에는 유의한 것이었으나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조선의 내부 비균질성은 다소 막연하게 이해하고, 특히 경성-중심-개발-도시는 전면화하면서도 지방-주변-저개발-농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성중심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동시에 문학과 문화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화적 표준에 유의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최재서가 1930년대 문학론에서 갖추었던 입장을 1940년대에도 유지한 것이었다.

앞서 김사랑과 최재서를 ‘망명’과 ‘귀화’로 대별하였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망명을 이주민이나 추방자의 전유물로 이해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적응을 거부하는 입장”이 망명이라는 태도의 핵심이다.⁶⁴⁾ 이 점에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역으로 그 자신이 이미 ‘적응’한 언어와 공간, 혹은 문학론을 확장하고자 한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그는 1930년대 문학론을 비판하면서 국민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여 1940년대 국민문학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중심과 주변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기존 그 자신의 “중심화된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변을 향해 사고하는 것을 선택”⁶⁵⁾한 실천이기 보다

63) 崔載瑞, 「轉換期の文化理論」(『人文評論』, 1941.2.), 12頁.

64) 에드워드 사이드,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지식인이란 무엇인가?』, 65쪽, 70쪽.

는, 여전히 경성이라는 중심과 권위를 유지한 채 1940년대 아시아태평양전쟁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문학론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재조일본인이라는 주체와 종교적인 것

1942년 1월 조선 총독부 도서과장 혼다 다케오는 『국민문학』 좌담회에 출석하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과거 검열 당국의 느낌에서 본다면, 과거 『인문평론』 혹은 『문장』 같은 것은 신문으로 비유해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년 언문 신문의 통제에 의해 이 두 신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매일신보』가 만들어졌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자식이죠. …(중략)… 최재서 님이 새롭게 잡지에 있어서 매일신보를 만들고, 얼굴도 새로운 『국민문학』 가운데 문인 모두가 뜻을 모아서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무척 공명하였고, 『국민문학』은 문예인 동원의 하나의 기연(機緣)이 되리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⁶⁶⁾ 최재서 역시 『국민문학』 편집은 그 이전 『인문평론』과 비교할 때 “실제 편집 방법이 바뀌어서 솔직히 제 자신이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어쨌든 1호 잡지를 편집하기 위해 각 방면의 권위자를 망라한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까지 몽상조차 못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⁶⁷⁾ 형식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새롭다는 것은, 잡지의 지향에서 전시 동원의 성격이 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 편 각 방면의 ‘권위자’, 즉 이전과 다른 주체가 개입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1946년 2월 임화가 『인문평론』을 비롯한 중일전쟁기 ‘공동전선’의 존재를 회상하면서 그 성격을 예술성, 합리성으로 지적하였듯, 최재서는 굴절된 담

65) 에드워드 사이드,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지식인이란 무엇인가?』, 77쪽.

66) 辛島驍 他, 「文藝動員を語る」(座談會), 『國民文學』, 1942.1, 110頁(혼다 다케오의 발언).

67) 辛島驍 他,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座談會), 89頁(최재서의 발언).

론공간에서 『인문평론』을 통해서 조선인 문학자의 조선어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산문정신과 시민적 교양의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⁶⁸⁾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전쟁기 『국민문학』은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주체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국민문학』 창간호에 최재서는 자신의 경성제대 영문학 스승 사토 기요시의 「눈」을 실었다. 이 시에서 사토는 그 자신이 “경성의 하늘”을 바라본지 “15년”이 되었음을 떠올리면서, “경성은 지금이야말로 / 정말 내 고향이 되었다.”라고 썼다.⁶⁹⁾ 사토의 시는 그가 재조일본인, 즉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식민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점에서 『국민문학』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지방(지역)을 공유하는 식민지 조선인과 식민자 일본인들이 함께 주체로서 개입한 국민문학을 위한 잡지였다. 『국민문학』은 주로 조선에서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문학 및 비평을 게재하였고 좌담을 편성하였다. 좌담회 25회 중 경성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 것은 동경과 평양 단 2회였다.⁷⁰⁾

평론집 『전환기의 조선문학』 말미에서 최재서는 국민문학에 관한 두 편의 실제 비평 「국민문학의 작가들」과 「시인으로서 사토 기요시 선생」을 수록하였다. 전자는 조선 작가를 중심으로 중진에서 신진에 이르기까지 국민문학의 작가를 다룬 평론이다. 이무영, 한설야, 김남천, 유진오, 정비석, 조용만, 함세덕의 작품을 다루었으며, ‘내지인 작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미야자키 세타로(宮崎清太郎), 구보타 노부오(久保田進男) 등을 다루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의 말미에 최재서가 “이 개관에서 김사랑과 아오키 히로시(青木洪, 홍종우 - 인용자)의 이름이 빠진 것은 지극히 유감이지만, 곧 원고를 달리하여 두 사람의 작품을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⁷¹⁾라고 하면서, 김사랑과 아오키 히로시를 제외한 주석을 붙여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68)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 2, 소명출판, 2009, 423쪽; 洪宗郁,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233~236頁.

69) 佐藤清, 「雪」, 『國民文學』, 1941.11, 10~11頁; 사토 기요시, 김윤식 역, 「눈」, (『국민문학』, 1941.11.),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195쪽.

70) 좌담회 「신반도문학에의 요망」(1943.3.)은 동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쿠치 간, 요코미쓰 리이치, 가와카미 테쓰타로, 야스타카 도쿠조, 후쿠다 기요토, 유아사 가쓰에, 최재서가 참여하였다. 좌담회 「평양의 문화를 말한다」(1943.1.)는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71) 崔載瑞, 「國民文學の作家たち」,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252頁.

1942년 2월에 탈고한 것인데 이때는 김사량이 조선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이었다. 즉 이 글을 쓸 무렵 김사량과 아오키 히로시는 동경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작가였으며, 최재서는 조선의 바깥, 동경에서 활동하는 작가에 대한 언급을 우회한 셈이다. 이후 『국민문학』이 두 사람의 작가와 그다지 활발한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사량은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평양에 머무는데, 그는 『국민문학』에 장편 『태백산맥』(1943.2.~10.)을 발표하며,⁷²⁾ 아오키 히로시는 소설 3편 「내의 고향」(1942.4.), 「고향의 누이」(1942.10.), 「견학 이야기」(1943.12.)과 수필 1편 「고향의 노래」(1942.7.)을 발표하는 데 그친다.⁷³⁾ 두 사람의 문학자에 대한 최재서의 비평적 발언 또한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1943년 12월 최재서는 결전 하 문단의 1년을 돌아보면서 “『물오리섬』에서는 아직 잠재적이었던 이상주의가 이번의 『태백산맥』에서는 전면적으로, 더구나 역사적인 규모에서 전개” 되었다고 평한 정도이다.⁷⁴⁾ 다만, 『전환기의 조선문학』 간행 직전 1943년 3월 동경의 좌담회에서 최재서 그 자신이 조선의 국민문학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그는 “지금 젊은 작가들 중에 가장 조선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아오키 히로시와 김사량이 아닐까요.”라고 두 사람의 위치를 또렷이 부각하며 두 작가의 공동된 특징으로 “격정성”을 지적하였다.⁷⁵⁾ 김사량과 아오키 히로시에 대한 『국민문학』의 과소진술은 최재서의 국민문학이 조선-경성을 중심으로

72) 『태백산맥』 이전 김사량이 『국민문학』에 실은 단편으로 「물오리섬(ムルオリ島)」(1942.1.)가 있다. 하지만 이 단편은 그가 아직 일본 가마쿠라 경찰서계 구류되었던 시기 일본에서 집필한 것으로 현재판을 건너 조선의 일본어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단편은 평양 대동강의 풍경과 조선어의 울림과 리듬 등 조선의 향토성을 풍요롭고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광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341~342쪽.

73) 아오키 히로시의 글은 『국민문학』 창간 2년차 및 3년차까지 한정되어 있다. 1942년 한 좌담에서 최재서의 발언을 참조하면, 『국민문학』 창간 당시 최재서는 만족스러운 ‘국어로 소설을 쓸 수 있는 조선인 작가가 4~5명에 불과해서 동경 등 외부에서 1~2명을 청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반도인 작가의 작품을 게재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동경 작가의 작품을 신는 것이 임시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木山炳奎 他, 「半島學生の諸問題を語る」(座談會), 『國民文學』, 1942.5·6, 147頁(최재서의 발언).

74) 石田耕人, 「決戦下文壇の一年」, 『國民文學』, 1943.12, 17頁.

75) 菊池寛 他, 「新半島文學への要望」(座談會), 『國民文學』, 1943.3, 10~11頁(최재서의 발언). 이후 1943년 9월 마키 히로시(牧羊, 이석훈)은 좌담회에서 김사량과 편지를 주고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한다. 牧羊 他, 「文學鼎談」(座談會), 『國民文學』, 1943.9, 30頁(마키 히로시의 발언).

구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재서는 재조 일본인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다.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개입하면서 일본문학을 재편할 가능성을 언급했던 최재서는 『시인으로서의 사토 기요시 선생』에서 “반도인 작가는 물론이고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 작가나 시인의 직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사토 기요시의 시를 “일본 문학 가운데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⁷⁶⁾ 즉 재조일본인의 시 역시 조선의 국민문학으로서 일본문학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비슷한 시기 최재서는 사토 기요시 등이 참여한 좌담에서 ‘내지’의 국민시와 ‘반도’의 국민시에 차이가 없는 것이 과연 기뻐할 일인지 질문하였다. 질문을 던진 이유는 최재서가 “반도인”과 “내지인”이 조선의 생활과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일본이 살아가는 길”을 쓰는 것을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존재방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⁷⁷⁾

최재서의 국민문학은 조선이라는 지역과 생활공간을 강조하면서 그 공간을 공유한 조선인의 문학과 재조일본인의 문학이 형성 중인 일본문학에 참여하여 새로운 일본문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⁸⁾ 약간의 시간이 흐른 1944년 최재서는 창씨개명인 이시다 고조(石田耕造)의 이름으로 『신반도 문학선집(新半島文學選集)』 두 권을 편집한다. 이 책은 조선에서 활동한 조선인 문학과 재조일본인 문학자의 작품을 함께 실은 것이었다.⁷⁹⁾ 가정형의 질문으로 최재서는 ‘반도의 사람’이 동경에 가서 조선의 현실을 망각하고 ‘내지인’과 다름 없이 쓴다면,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회의하였

76) 崔載瑞, 『詩人としての佐藤清先生』(『國民文學』, 1942.12.),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266頁, 272頁.

77) 佐藤清 他, 『詩壇の根本問題を衝く』(座談會), 『國民文學』, 1943.2, 18頁(최재서의 발언), 13頁(최재서의 발언).

78) 김재용은 최재서의 협력을 두고 ‘속지주의적 혼재형 친일협력’이라고 명명하였다. 김재용, 『풍화와 기억』, 17쪽.

79) 『신반도문학선집』에 수록된 조선인 문학과 재조일본인 문학자의 소설에 관해서는 이원동, 『군인, 국가, 그리고 죽음의 미학—『신반도문학선집』의 소설들』,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서승희, 『전쟁과 서사, 그리고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아이덴티티—汐入雄作와 宮崎清太郎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참조.

고, 그것은 마치 말이 허공에 쓴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최재서의 국민문학에서 작가의 민족성이라는 지표보다 조선이라는 장소와 현실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⁸⁰⁾

최재서가 『국민문학』의 출발 및 그 진행 및 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재조일본인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아카데미즘"의 주체였다. 그리고 최재서와 경성제대 아카데미즘이라는 복수의 주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성제대 영문과 및 법문학부 교수들,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의 재조 일본인 문학자, 조선 문학자들, 그리고 일본 내지에서 활동하던 소설가들이 모여 있는" 『국민문학』 창간호였다.⁸¹⁾

하지만 『국민문학』을 간행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최재서는 국민문학의 '창작과 비평'의 빈곤을 마주해야 했다. 『국민문학』 창간 초기 그는 일본어로 창작 가능한 작가 20~30명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소설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만족스럽게 국어로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는 너댓 명 정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초기에는 동경에서 활동했던 작가의 글 1~2편을 실어야 했다.⁸²⁾ 김사랑, 아오키 히로시 등의 작품이 그 예이다. 1943년 3월 내지 문학자와의 좌담에서는 조선인 작가와 재조 일본인 작가를 포함하여 일본어 문단은 "약간 슬럼프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다.⁸³⁾ 마키(이석훈) 또한 "최근 평론 같은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듯하다는 느낌을 숨기지 않았다.⁸⁴⁾ 더 큰 문제는 그가 국민문학의 주체라 생각한 조선이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입장 차이와 상호 간의 거리감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다. 이미 창간호 좌담에서부터 조선문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가라시마와 박영희, 최재서는 입장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그 충돌은 다른 좌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재조일본인 역시 조선인이라는 타자와의 만남을 원

80) 佐藤清 他, 「詩壇の根本問題を衝く」(座談會), 『國民文學』, 1943.2, 16頁(최재서의 발언).

81)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국민문학』」,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257~258쪽; 김동식, 「낭만주의·경성제국대학·이중어 글쓰기-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관한 몇 개의 주석」, 233쪽 참조.

82) 木山炳奎 他, 「半島學生の諸問題を語る」(座談會), 147頁(최재서의 발언).

83) 菊池寛 他, 「新半島文學への要望」(座談會), 『國民文學』, 1943.3, 2頁(최재서의 발언).

84) 牧羊 他, 「文學鼎談」(座談會), 『國民文學』, 1943.9, 32頁(마키 히로시의 발언).

했지만 실제로 그 만남이 성립되자, 그 만남은 당혹스러움과 불쾌감, 불만과 갈등의 경험으로 현상하였다.⁸⁵⁾

나이가 전시체제의 압박이 강해지고 동원의 압력 역시 무거워지면서 최재서 역시 그 무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전환기의 조선문학』에 실린 강연록 『국민문학의 입장』(강연록, 탈고일, 1942.10.)의 말미에는 “국가가치는 다만 모든 가치의 상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이며, “일본의 국가가치는 일본 국민의 본질로서 이미 신대(神代)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 국가이상을 명심하고 지켜 그 본질적 가치를 현현하는 것이 일본국민의 항상 변치 않을 사명”이라고 설명한다.⁸⁶⁾ 하지만 이 언급은 전체 강연과 맥락을 갖추지 못한 채 첨가되었다는 느낌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김윤식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지향한 목표를 “(A) 예술작품(운동)을 창출하기와 (B) 일어로 된 동양문학의 건설”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1943년 4월 최재서는 파리 함락 이래 자신의 국민문학론을 갈무리하여 비평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을 간행한다. 이것은 비평가로서 “역량 및 활동”에서 최대치였으나 동시에 그에게 한계이기도 하였다. 이후 최재서는 비평 발표와 좌담회 참석을 줄여가는 한 편으로, 소설 창작으로 나아간다. 그는 처음에는 본명으로 『보도연습반』(1943.7.)과 『부싷돌』(1944.1.)을 발표하였고, 이후 필명 석경(石耕)으로 『쓰키시로 군의 종군』(1944.2.)을, 필명 석전경인(石田耕人)으로 일본어 소설 『때 아니게 핀 꽃』(1944.5.~8.)과 『민족의 결혼』(1945.1~2.)를 발표한다.⁸⁷⁾

소설 『부싷돌』, 『때 아니게 핀 꽃』, 『민족의 결혼』 세 편은 고대 신라의 서사를 다룬 것이다. 최재서는 고대 삼국시대를 내선교류가 밀접했던 시기로 규정하였다. 혜자, 담징, 왕인 등 한반도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85)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63~68쪽. 윤대석,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驥)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327~328쪽.

86) 崔載瑞, 『國民文學の立場』, 148~149頁.

87)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54쪽. 석전경인(石田耕人)은 필명이며, 최재서의 창씨개명은 이시다 고조(石田耕造)이다. 같은 책, 256쪽. 『녹기(綠旗)』에 발표된 『쓰키시로 군의 종군』을 제외한 일본어 소설은 모두 『국민문학』에 발표되었다.

이동은 언어와 종교로 흔적을 남겼다. 사토 기요시와 최재서 역시 이러한 흔적을 살려서 작품을 창작하였다.⁸⁸⁾ 삼국시대 내선교류는 1940년대 최재서가 논리화하였으나 현실화에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이 참여한 국민문학이라는 장을 떠올리도록 한다.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경성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세 편의 소설은 모두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동시에 최재서는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에 대하여 “조선인이 신앙심에 불탔던 시기”, 곧 종교의 시기로 명명하였다.⁸⁹⁾ 다만, 최재서의 창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인 것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스승 사토 기요시의 시 『경주 불국사 재건』과 제자 최재서의 신라 배경 소설 중 첫 번째 것인 『부싷돌』(1944.1.)은 죽은 아이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전설의 합리적 설명을 공유하였다.⁹⁰⁾

최재서의 소설에서 종교가 개입하는 과정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1943년 8월 25~27일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참여 중의 유시마성당(湯島聖堂) 방문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⁹¹⁾ 이 때의 경험에 관하여 최재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88) 崔載瑞, 『國民文學の作家たち』, 250頁; 菊池寛 他, 『新半島文學への要望』(座談會), 『國民文學』, 1943.3, 13~14頁(최재서의 발언);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101~122쪽, 177~244쪽.

89) 菊池寛 他, 『新半島文學への要望』(座談會), 『國民文學』, 1943.3, 13頁(최재서의 발언); 崔載瑞, 『國民文學の作家たち』, 250頁.

90) “나는 재상가에 태어났던 모양. / 나는 아무 구애도 없이, 그대로, / 이 야기를 믿고 있었는데, 세상 물정에 눈뜨자 / 어느 날이었다. …(중략)… 그때 나는 급히 눈을 뜬 느낌이었다. / 유모 따위라고 생각했던, 저 아름다운, 수줍은 사람이/ 실은 나를 낳은 어미이며 / 나에게만 비밀이었던 비밀이 내게도 이미 비밀이 아니게 되고 말았다. …(중략)… 생모를 위해서는 / 석불사 건립을 결의할 때가 왔다.” 佐藤清, 『慶州佛國寺再建』, 『佐藤清全集』2, 詩声社, 1963, 99~100頁; 사토 기요시, 김윤식 역, 『경주 불국사 재건』,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207면; “영리한 대성이 언젠가는 이러한 어른들의 비밀을 잘 알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 그리하여 재상 김대성은 국왕에 헌책하여 불국사 중수를 했다. 그 무렵 그의 가슴 속에는 쓸쓸한 한 사람의 여인을 위해 보잘 것 없지만 진실이 실린 절 한 채를 세우고자 하는 비원이 끓고 있었다.” 崔載瑞, 『燧石』, 『國民文學』, 1944.1, 115~116頁; 최재서, 김윤식 역, 『부싷돌』(『국민문학』, 1944.1.),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115쪽.

91)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관해서는 오무라 마스오,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4, 69~99쪽 참조.

나는 오늘날까지 논어(論語)를 읽은 적은 없지만, 유교(儒敎)를 신봉(信奉)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 건축과 그 분위기는 내게 딱 맞다. 유교는 나의 혈관을 흐르는 것 아닐까. / 이런 이유에서 중화민국이나 ‘만주국’의 대표자들이 이 성당에서 어느 정도 기뻐할까. …(중략)… 사상과 문화와 같은 실로 하나라면 거기에 골육의 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만일 동아(東亞) 여러 민족의 사이에 이렇게 골육의 정이 생겨난다면 어떨까.⁹²⁾

유교라는 종교가 자신의 핏속을 흐른다는 그의 진술은 창씨개명을 거쳐 해방 이전 ‘마지막 이론적 몸부림’인 비평 『사봉하는 문학』(1944.4.)으로 이어진다. ‘사봉하는 문학’은 “천황을 섬기며 받드는 문학”을 의미한다. 최재서는 자신의 창씨개명 경험을 고백하면서 “제사의 문학(祭りの文學)에서 시작한 우리 일본의 문학이 지금엔 제정일치의 문학(まつりごとの文學)으로서 세계에 웅비코자 함을 대망하고 그 전통인 사봉하는 정신에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한다.⁹³⁾ 스승 사토 기요시는 끝내 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지만, 최재서는 이론적 허술함을 무릅쓰면서 정치와 종교를 결합하여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설명하였다.⁹⁴⁾

최재서의 소설 『때 아니게 핀 꽃』과 『민족의 결혼』은 삼국통일과 민족 간의 결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을 고대사에 투영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⁹⁵⁾ 다른 한 편, 종교적 광신은 논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적 실천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⁹⁶⁾ 앞서 언급한 두 편의 소설은 인문주의와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화랑의 계율을 어기고 전쟁터에서 물러났기에 아버지 김유신과 어머니 지

92) 崔載瑞, 『大東亞意識の目覺め』, 『國民文學』, 1943.10, 137頁.

93) 石田耕造, 『まつろふ文學』, 『國民文學』, 1944.4, 4頁, 18頁; 이시다 고조, 김윤식 역, 『사봉하는 문학』(『국민문학』, 1944.4.),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126쪽, 140쪽.

94)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200쪽;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4, 198쪽.

95)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337쪽.

96)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인문주의와 민족적 비판』, 마티, 2012, 77쪽.

소로부터 버림을 받은 원술이 중심인물인 『때 아니게 핀 꽃』 역시 신라의 “왕성” 경주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⁹⁷⁾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종교적인 서사가 정치적인 서사의 잉여로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청년 김유신은 ‘삼국 합병’의 뜻을 인정받아 ‘비법’을 전수받는 “신심이 깊은” 인물이자 “수로임금님 때부터 가락국의 궁중 깊이 전해져 온 신검(神劍)”을 들고 “혼자가 산 속에 틀어박혀 일심으로 기도”하는 인물로 “기적”을 거듭 경험한 인물로 제시된다. 비현실적이고 은밀하면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삼국통일의 이유는, 소설의 서두에서 삼국 통일의 이유를 “무열과 문무 두 왕의 영민함과 총명함”이 “김유신의 무용과 원효의 지략, 그리고 강수의 문장”에 힘입은 결과라는 선행 서술과 충돌하기도 한다.⁹⁸⁾ 소설의 중반에는 밀교 사원 원원사(遠願寺)의 호마법 의식이 제시되는데, 이 서술은 전체 서사의 전개와 무관하게 삽입된다. 공주 남해는 밀교 의식에 다소 의문을 제기 하지만 애초에 김유신이 밀교 의식을 허용한 것이었듯, 이 종교 의식은 기존 신라의 질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

연재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에서 『때 아니게 핀 꽃』은 최재서가 쓴 소설 중 가장 긴 분량을 갖추었지만, 김유신이 구축한 현실의 질서는 원술의 패전으로 일시 위기를 맞지만, 결국 회복되고 완성된다. 동시에 이 질서는 이미 김유신에 의해 운명론적으로 완성될 것이 이미 예언된 질서이기도 하다. 그 완성 과정은 정치(전쟁, 삼국통일), 종교(밀교, 불교, 유교), 공간(도읍) 등을 통해 서사화되며, 지소, 원술, 남해는 차례로 도읍을 떠나는 방식으로 서사의 전경에서 사라진다. 『사봉하는 문학』에서 최재서는 ‘제정일치’를 언급하지만 이 소설의 결말은 정치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맺어진다. 마지막 회에서 눈에 띄는 서술 중 하나는 원술이 남해와의 대화 가운데 현실 정치의 질서를 위배한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면서 “무슨 면목으로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인가”라고 자문한다는 점이다.⁹⁹⁾ ‘서울’은 죄지은 지는 걸을 수

97) 石田耕人, 『非時の花』(1), 『國民文學』, 1944.5, 64頁.

98) 石田耕人, 『非時の花』(2), 『國民文學』, 1944.6, 74~75頁; 石田耕人, 『非時の花』(1), 70頁.

99) 石田耕人, 『非時の花』(4), 『國民文學』, 1944.8, 87頁.

없는 곳으로 제시되며, 원술이 사라짐으로 신라의 ‘서울’은 죄없는 자들의 정치적 공간으로 회복된다.

역시 신라의 수도 경주가 배경인 『민족의 결혼』은 서사적 절정에 종교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신라계 김춘추와 가락계 김유신이 골품제라는 사회적 위계를 극복하고 결혼에 도달하기 위해 옛 종교 의식인 번제를 전략으로 선택하며, 누이 김문희는 희생 제물을 자처한다.

“옛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화톳불을 피워서 그 위에 살아있는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그 연기가 하늘에 닿으면,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반드시 통했다고 생각한단다.” …(중략)…

“네,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물이 되어 신라와 가락 두 민족의 담이 무너질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을 불태우겠습니다. 부디 아버지께 그리 말씀드려 주세요. 금관 왕국의 옛 법식을 좇아 인륜을 어긴 딸을 불사르시라고.” / 유신은 누이의 손을 힘껏 잡으며 울면서 소리쳤다.

“나에게 목숨을 맡겨다오. 만약 네가 불에 타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나도 신라에서는 살지 않겠다. 반드시 고구려로 쫓아가 고집세고 어둡고 무지한 신라가 각성할 때까지, 불태우고 불태우고 또 불태워 다해버리겠다.”¹⁰⁰⁾

『민족의 결혼』에서는 주요한 인물인 김춘추와 김유신도 (의사)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 이 소설에서도 “어쨌든 신라의 역사는 30세의 몰래 마음 속에서 그렸던 각본과 같이 전개”된다고 분명히 서술된다.¹⁰¹⁾ 김유신은 일종의 예언자적 존재이며 그 예언을 실현하는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이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처음에는 의식의 외부에 있고 그들의 감정은 차분하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 의식에 연루 되면서 이들의 감정 역시 점차 고조된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원했던 민족의 결혼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도출에 도달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은 엄청난 감정의 진폭을 경험하게 된다. 앞

100) 石田耕人, 『民族の結婚』(2), 『國民文學』, 1945.2, 51~52頁.

101) 石田耕人, 『非時の花』(4), 63頁.

선 『때 아니게 핀 꽃』에 비교할 때, 『민족의 결혼』의 인물들은 서사에 등장하는 종교적인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민족의 결혼』은 전반 서사와 후반 논평으로 구성되는데, 전반 서사의 마지막 장면은 주요 인물들이 제복을 입은 채 제의를 수습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 후반 논평은 서술자가 역사가의 의장으로 등장하여 예언과 기록을 넘나들다가 호국을 선언하는 문무왕의 전설적인 유언을 통해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종결된다.

종교적인 것이 개입하는 최재서의 소설 두 편은 역시 종교적인 것이 개입하는 김사량의 증일전쟁기 일본어 소설 『천사』와 비교할 수 있다. 『천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량과 조군은 사상과 시대가 불일치하자 타협과 혼란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만취 후 오랜만에 도달한 원산에서 옛 친구 홍군의 부음을 뒤늦게 듣고, 석왕사 관등제에서 홍군의 누이 이뿐이가 그네뛰기를 통해 친구 홍군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밤중 이뿐이는 그네뛰기를 통해 하늘 높이 날아올라 제등을 발로 찬다. 이뿐이가 찬 제등은 “불이 붙은 채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면서 량과 조군은 목이 메인채 울먹인다. “홍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군.” “천사가 불러서, 천사가 불러서……”¹⁰²⁾ 김사량의 ‘종교적인 것’은 밤하늘에서 내려오는 제등(提燈)의 형상으로 제시된다. 『천사』에서 김사량은 ‘조선적인 것’ - ‘종교적인 것’ - ‘과거로부터의 구원 가능성’을 통해 ‘제도적인 것’ - ‘정치적인 것’ - ‘직선적 역사관’을 구원하였다.¹⁰³⁾

김사량의 『천사』와 최재서의 『민족의 결혼』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전자는 원산을 배경으로 이뿐이라는 여성-민중에게서 구원의 계기를 발견하고 있다. 주변부의 지역과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후자는 경주를 배경으로 남성-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심의 지역과 상층인물에 주목한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어법을 빌리면, 김사량은 ‘세속세계’ 안에서 고유의 법칙과 과정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며, 최재서는 이미

102) 金史良, 『天使』(『婦人朝日』 1941.8.), 『故郷』, 甲鳥書林, 1942, 158~189頁; 김사량, 윤대석 역, 『천사』(『부인아사히』, 1941.8.), 김윤식, 『논술로 통하는 소설』 5 - 역사·사회현실과 함께한다, 한국문화사, 2005, 133쪽.

103)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182~183쪽; 장문석, 『김사량과 독일문학』, 195~196쪽.

‘성스럽게 예정된 신정(神政)주의적 경향’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¹⁰⁴⁾ 그리고 김사량의 『천사』에서 주변의 현실에서 길어진 ‘종교적인 것’으로서 이뿐이가 찬 제등은 “위험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으로서 “균질하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폭파”한다.¹⁰⁵⁾ 이에 비해 최재서가 제시한 종교적인 것은 김유신이 은밀히 마음 속에 품었던 운명론적 각본과 문무왕의 종교적인 예언로 제시되며 신라의 국가 서사로 회수된다.

5. 전환기의 인문학

이 글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의 맥락에 유의하면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경성중심성, 문화적 표준, 종교적인 것이라는 세 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은 논의의 전제로서 최재서가 편집자 겸 발행인으로서 활동하였던 잡지 『국민문학』의 변모과정에 유의하였으며, 1943년 최재서가 일본어 비평집 『전환기의 조선문학』을 출판했고, 이후 소설 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유의하였다. 우선 파리 함락 이후 문화주의 비판과 국민이라는 이념 정립 속에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2장). 이 과정은 1930년대 최재서 자신의 문학론을 자기비판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나타난 경성중심성과 문화적 표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3장). 최재서는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강조하였으며,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의 일익(一翼)으로 일본문학을 재편성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제국 일본문학의 내부에 여러 문화적 단위를 구획하려는 최재서의 기획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와 달리,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비균질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를 최재서의 경성 중심성과 문화적 표준에 대한 인식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서 재조일본인과 종교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

104) 에드워드 사이드,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지식인이란 무엇인가?』, 74~75쪽.

105)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길, 2008, 348쪽.

보았다(4장). 그의 국민문학론은 경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재조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창작한 소설 역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내선일체’를 역사적으로 투사한 것이었다. 그의 소설에서 종교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회수된다. 또한 이 글은 시험적으로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 신정(神政)과 세속, 수도와 지방 등의 기준에서 김사량과 최재서의 주체구성·언어·문학 등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는데, 경성중심성, 문화적 표준, 종교적인 것 등을 핵심어로 1940년대 국민문학을 입체적으로 다시 읽는 것은 추후의 과제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터키에 망명 중이던 아우어바흐가 집필한 『미메시스』가 유럽의 몰락으로부터 감각과 의미를 구하려는 시도였으며, 문헌학적 작업을 통해 “회복과 구제의 힘을 가진 인간적 기획”을 수행하면서 동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의미화하였다.¹⁰⁶⁾ 파리의 몰락에서 유럽의 몰락을 읽어냈던 식민지의 지식인 최재서의 선택은 아우어바흐의 경우와는 달랐다.

이 글은 최재서의 선택과 논리가 아우어바흐와 달랐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거나 평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 그것으로부터 “사실로서의 사상을 해부”하고 “전통을 형성”하고자 고민한 하나의 시도이다.¹⁰⁷⁾ 이 글이 애초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 하기는 몹시 미흡하다. 1940년 6월 15일 파리 함락 이후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진화한 맥락을 기술하다 보니 그 구체적인 변모의 양상을 섬세하게 기술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최재서의 경성 중심성을 지적하였으나 그것은 이 글이 집중적으로 분석한 「조선문학의 현단계」(1942.8.)에 해당한다. 1943년 5월 좌담회 「농촌 문화를 위하여」에서 최재서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좌담을 이끌어간다. 그 사이 최재서는 여러 행사로 조선의 농촌 곳곳을 방문하고, 농촌의 현실 및 민

106)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156쪽.

107)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1959), 마루카와 테쓰시 외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고쳐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114쪽.

중의 삶과 마주쳤을 것이다. 그 좌담에서 최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익스피어의 연극이 태어난 시대도, 역사나 당시 세계를 뒤덮을 기세였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ギリス가 정복하여 처음으로 국민적 자신이 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류국가였습니다만, 그 국민적 분위기를 세익스피어가 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선전(宣傳)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모두 국민연극이 되었고, 게다가 저만큼 세계적인 것이 되어 있다. 작품에는 별로인 부분도 있고 훌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국민적 열정이지요.¹⁰⁸⁾

최재서의 짧은 발언에서 영문학자로서 그의 지식과 판단, 국민(민중)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 전시체제의 동원에 대한 감각이 만나면서도 어긋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은 독해에 관한 것이고, 관점에 관한 것이며, 인문학자의 작업을 통해 하나의 영역, 하나의 인간 경험에서 다른 영역, 다른 경험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정체성 실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¹⁰⁹⁾ 이 시기 최재서의 비평, 강연록, 좌담회의 별자리(constellation)를 구성하여 섬세하면서도 비판적인 문헌학적 독해를 수행하는 것은 인문학의 영역이다. 이 글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둘러싼 인문학의 과제가 여럿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에서 잠시 멈춘다.

따라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문헌학으로의 회귀를 제안하면서 길어올린 통찰은 전환기의 식민지 조선의 비평가 최재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최재서와 그의 시대를 다시 읽는 지금 시대, 전환기의 인문학 연구자 자신을 위한 경계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인문주의는 드러냄의 형태여야 하지, 비밀 또는 종교적 계시의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¹¹⁰⁾

108) 李家英竹 他, 『農村文化のために』(座談會), 『國民文學』, 1943.5, 95~96頁(최재서의 발언).

109)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113쪽.

110)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105쪽.

■ 참고문헌

1. 자료

- 崔載瑞,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 김재웅·곽형덕 편역, 『김시랑,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 김윤식, 『논술로 통하는 소설』 5-역사·사회현실과 함께한다, 한국문학사, 2005.
-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비평 2, 소명출판, 2009.
- 홍중욱 편,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론』, 서울대출판문화연구원, 2017.
- 佐藤清, 『佐藤清全集』 2, 詩聲社, 1963.
- アーヴィング・バビット, 崔載瑞 譯, 『ルーソーとロマン主義』(上), 改造社, 1939.
- 『국민문학』, 『인문평론』.

2. 논문

- 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 - 최재서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 김동식,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_____,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 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 _____, 「세계의 장소場所論 - 지구·대타자·여백으로서의 세계」, 『문학과사회』 27(1), 문학과지성사, 2014.
- _____, 「낭만주의·경성제국대학·이중어 글쓰기 - 김윤식의 최재서 연구에 관한 몇 개의 주석」,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 김윤식, 「최재서론 - 비평과 모더니티」, 『현대문학』, 1966.3.
- 노민혜, 「해방 후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6.
- 박진영, 「전선에서 돌아온 영문학자 임학수의 초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 서승희, 「최재서 비평의 문화 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 _____, 「전쟁과 서사, 그리고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아이덴티티 - 汐入雄作와 宮崎清太郎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 _____,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 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8.
- _____, 「식민지 후반기 조선문학의 재생산과 전승의 기획 -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2」,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학회, 2019.
-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 _____,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驥)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015.
- 이경재, 「김시랑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 이만영, 「보편에 이르는 길 -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2012.

- 이양숙, 『한국 근대 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2007.
- 이원동, 『군인, 국가, 그리고 죽음의 미학 - 『신반도문학선집』의 소설들』,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 이혜진,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한국학』 3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_____, 『최재서 비평론의 연속과 단절』,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 장문석, 『출판기획자 최재서와 인문사의 탄생』,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 _____, 『김시량과 독일문학』, 『인문논총』 76(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9.
- 정실비, 『일제 말기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고향 표상의 변전(變轉)』,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 홍종욱, 『주변부의 근대 - 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 다카하시 아즈사, 『김시량의 일본어 문학, 그 형성 장소로서의 『문예수도』 - ‘제국’의 미디어를 통한 식민지 출신 작가의 교류』, 『인문논총』 76(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9.
- 미하라 요시아키, 홍종욱 역, 『최재서의 Order』, 와타나베 나오키 외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 _____, 임경화 역, 『‘국민문학’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 _____, 장세진 역, 『‘보편주의’와 ‘보편성’의 사이 - 스코틀랜드 계몽과 『국민문학』』, 『한국학연구』 2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 金東植, 沈正明 訳, 『崔載瑞の批評と東アジアモダニズムのコンタクト・ゾーン - 金允植による崔載瑞の読みをめぐるいくつかの注釈』, 『言語社会』 14,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2020.

3. 단행본

- 곽형덕, 『김시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1 - 도남과 최재서, 일지사, 1984.
- _____,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4.
- _____,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 기요시 교수』, 역락, 2009.
- 김재용, 『풍화와 기억』, 소명출판, 2016.
- 오무라 미스오,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4.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임종국, 이진제 교수, 『친일문학론』(교주본), 민족문제연구소, 2013.
-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 제국적 주체를 향한 욕망과 분열』, 창비, 2011.
-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근대의 초극』(1959), 미루카와 데쓰시 외편,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 - 고뇌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역, 『아시아/일본 -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2012.
- _____, 최유준 역, 『지식인의 표상 -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마티, 2012.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 5, 길, 2008.

京城帝國大學 編, 『紺碧遙かに -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清水美里, 『帝国日本の『開発』と植民地台湾 - 台湾の嘉南大圳と日月潭発電所』, 有志舎, 2015.

洪宗郁, 『戦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2009.

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 長谷部文雄 譯, 『資本蓄積論』(下), 岩波書店, 1934.

京城中心性 · 文化的標準 · 宗教的なもの

－崔載瑞の国民文学論に関するいくつかの注釈－

張紋碩*

本稿では、朝鮮近代文芸批評史をふまえながら、崔載瑞の「国民文学論」について「京城中心性」「文化的標準」「宗教的なもの」という三つのキーワードを中心に考察した。まず、議論の前提として、崔載瑞が編集兼発行人を務めた雑誌『国民文学』の性格の変化と、崔載瑞が1943年に日本語批評集『転換期の朝鮮文学』を出版した後に小説の創作を行うようになったという事実注目した。第2章では、パリ陥落以降に文化主義をめぐる批判と国民という理念が確立する中で、崔載瑞の「国民文学論」が形成されたことについて検討した。崔載瑞の「国民文学論」の形成過程は、1930年代の彼自身の文学論を自己批判する過程でもあった。次に、第3章では、崔載瑞の「国民文学論」における「京城中心性」と「文化的標準」について検討した。崔載瑞は地方文学としての朝鮮文学の獨創性を強調し、朝鮮文学が日本文学の一翼として日本文学を再編成するとした。このような朝鮮文学をめぐる認識の裏には、帝国の日本文学の内部にさまざまな文化的単位を区画しようとする崔載瑞の企てが存在した。崔載瑞は朝鮮文学の非均質性をはつきりと認識できなかったが、本稿ではその理由を崔載瑞の「京城中心性」と文化的標準をめぐる認識と結び付けて考察した。最後に第4章では、崔載瑞の「国民文学論」における在朝日本人と「宗教的なもの」が持つ意味について考察した。崔載瑞の「国民文学

* 慶熙大学校 国語国文学科 助教授

論」は、京城という空間を中心とし、朝鮮人と在朝日本人が共に参加するものであった。崔載瑞が創作した小説も、新羅の首都・慶州を背景に、「内鮮一体」を歴史的に投射したものであった。彼の小説における「宗教的なもの」は、政治的なものとして回収されることになった。また、本稿は内部と外部、中心と周辺、神政と世俗、首都と地方などの基準によって、金史良と崔載瑞の主体構成・言語・文学などの比較を試みたが、「京城中心性」「文化的標準」「宗教的なもの」などのキーワードをとおして、1940年代の「国民文学」について立体的に捉え直すことは今後の課題である。

核心語 : 崔載瑞, 『国民文学』, 『轉換期の朝鮮文学』, 国民文学論, 文化主義, 京城中心性, 文化的標準, 在朝日本人, 「宗教的なもの」, 金史良